



F.B.I EXECUTIVE REPORT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Contents January 23, 2013

Biweekly Report

- 2** The Right Way to Destroy Sensitive Data
박은영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- 5** Marketing to Kids: Toy Sellers' Bonanza Or Parental Danger Zone?
임소연, from Knowledge@Wharton

- 8** Just Business: 2 Hedge Fund Rivals Clash over Herbalife
강민경, from The New York Times

- 11** India Tackles Its Costly Gold Addiction
진나현, from Financial Times

- 15** Japan's Abe Unveils 10.3 Trillion Yen Fiscal Stimulus: Economy
김령래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- 18** Global House Prices
서성웅, from The Economist

Cover Stories & Special Report

- 21** Japan's Central Bank Is Pressed to Boost Money Supply
정근우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The Right Way to Destroy Sensitive Data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1.08\)](#)

* 요약자: 박은영 (evenstar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전자제품 재활용, 데이터 폐기

“전자 폐기물 내의 민감한 정보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”

□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재활용업체를 통해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로 제정되어 있음

- 재활용업체를 통하여 컴퓨터, 프린터, 서버 등은 개조되어 재판매가 가능
- 되파는 것이 불가능한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에서 금과 구리와 같은 유용한 금속을 채취하여 재활용

□ 하지만 기업이 오래된 컴퓨터를 재활용업체에게 버리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

- 기업은 재활용업체에게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민감한 정보를 지우는 과정을 등한시
 - 그 결과 개인의 사회보장번호, 신용카드 정보, 기업 기밀이 유출되어 곳곳에서 판매됨
- 세계정보파기국립협회(NAID)의 경영자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5년 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, 여전히 그 심각성은 크다고 지적

□ 전자제품에 저장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‘영구 삭제(sanitization)’의 과정이 필요하며,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

- 기업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폐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전문 기업에 작업을 맡김
 - 문서 분쇄 처리, 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며, 컴퓨터 대여 업체에서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료를 폐기해주기 때문
- 전문가들은 정보의 민감도와 자료 폐기를 위한 고객의 지불 정도에 따라 영구 삭제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보유
- 하드 드라이브에 구멍을 뚫는 것 또한 정보를 폐기하는 방법이지만 완전한 폐기는 불가능
 - 해커들은 시간과 노력, 그리고 돈을 들여 자료의 일부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


□ 또한 디가우징, 와이핑을 통해 자료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도 존재

- 디가우징(degaussing)은 하드 드라이브와 플로피 디스크, 컴퓨터 테이프를 강력한 자기장에 노출시켜 자료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
- 와이핑(wiping)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방법은 저장되어 있는 자료 위에 새로운 자료를 덮어 씌우는 것으로 소프트웨어가 이 작업을 대신해주기도 함
 - 하지만 덮어씌우는 과정의 횟수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며, 기업들의 경우 보통 3번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권장

□ 한편, 기업이 재활용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들이 공인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절차

- 미 환경보호청은 재활용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
- 세계정보파기국립협회(NAID)도 이를 위해 추가적인 인증을 제공

□ **재활용되는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정보가 불러올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기업마다 천차만별**

- 어떠한 기업은 하드 드라이브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청
-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, 특히 소규모 기업들이 정보 폐기의 중요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부족한 상황
 - 이러한 기업을 교육시키는 것이 정보폐기업체들의 일이기도 함 

Marketing to Kids: Toy Sellers' Bonanza Or Parental Danger Zone?

* 기사출처: [Knowledge@Wharton \(2012.12.05\)](#)

* 요약자: 임소연 (cian92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키즈 마케팅, 온라인 광고, 규제**

“어린 아이들을 공략하는 온라인 키즈 마케팅, 규제가 필요한 시점”

□ 기업들이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‘키즈 마케팅’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

- 단순히 TV 광고를 방영하거나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방법을 넘어,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방법에 변화를 줌
- 특히 아이들을 쉽게 유인하고 콘텐츠에 빠져들 수 있도록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
 - 상품 홍보를 위해 만들어낸 ‘애드버게임’, 게임 내 PPL인 ‘인게임애드’가 그 사례

□ 부모가 아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키즈 마케팅은 실제로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큼

- 부모는 대부분 자녀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주는 경우가 경우가 많음
- 아이들을 위해 쓰는 부모의 지출 중 47%는 자녀의 요구에 따라 소비된 돈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음

□ 그러나 온라인 키즈 마케팅의 경우 부모의 감시와 지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

- 일단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접근할 수단이 생기면 부모는 아이들이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이 없음

- 현재 TV 광고와는 달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를 따로 규제하는 연방 기관이 없어 아이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노출 됨


□ 또한 온라인 광고는 기존의 광고보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높은 편

- 기존 TV광고는 어린이들이 광고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형태라서 쉽게 빠져들지 않음
- 반면 최근의 온라인 광고는 게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큼
- TV보다 인터넷을 하는 환경이 더욱 폐쇄적이므로 보다 사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큼

□ 보다 큰 문제는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 광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

- 8세 이하의 아이들은 광고가 담고 있는 숨겨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, 보다 어린 유아는 광고와 프로그램조차 구별하지 못함
- 충동 조절 능력이 있는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광고에 대한 방어기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음
- 또한 제대로 된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함

□ 이러한 점 때문에 온라인 키즈 마케팅을 규제하는 방안에 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됨

- 아직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한 규제기관들 때문에 온라인 키즈 마케팅은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음
- 규제가 없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광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모의 감시가 필요
 - 아이들에게 광고와 사실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교육시킬 책임이 존재 

Just Business: 2 Hedge Fund Rivals Clash over Herbalife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3.01.09\)](#)

* 요약자: 강민경 (hannah1116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허벌라이프, 애크만, 로브

“허벌라이프를 놓고 벌어진 논쟁과 이로 인한 주가 변동”

□ 유명 영양식품업체 허벌라이프를 두고 헤지펀드 매니저 윌리엄 애크만과 다니엘 로브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주목을 받고 있음

- 헤지펀드 '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(Pershing Square Capital Management)'의 윌리엄 애크만은 허벌라이프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며, 허벌라이프의 주식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주장
 - 실제로 불과 몇 주 전 윌리엄 애크만은 투자회의에서 허벌라이프를 맹비난하며 공매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확인
- 이에 반해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다니엘 로브는 허벌라이프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
- 이는 다니엘 로브의 헤지펀드 '서드포인트(Third Point)'가 허벌라이프의 주식 900만 주를 매입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자리에서 벌어진 언쟁
 - 예일 경영대의 부학장은 두 사람의 언쟁에 대해 “스모 경기보다 더 큰 싸움” 이라고 비유

□ 이 둘의 분쟁은 허벌라이프라는 기업의 영업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
- 허벌라이프는 역사상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식 구조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, 단 한 번도 불법 영업행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평가됨

- 회원모집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으며 일하는 독립적인 재판매업자 집단에 의존
- 그러나 윌리엄 애크만은 허벌라이프의 사업구조가 재판매업자들을 기만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포식적인 관행을 통해 학력 수준이 낮은 소수 직원들로 하여금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한다고 주장
 - 그는 허벌라이프 재판매업자들의 네트워크를 겨냥해 "회원 모집을 위한 노력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좋다"고 발언
- 반면 다니엘 로브는 이에 반박하여 허벌라이프를 '혼합자(compounder)'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충성스러운 고객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온 회사라고 주장하며 허벌라이프를 두둔


□ 이처럼 윌리엄 애크만과 다니엘 로브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, 사실 월스트리트에서 그들은 서로 비슷한 특징을 지닌 인물들로 평가됨

- 대부분의 헤지펀드 매니저와는 달리, 행동주의적 기질을 지닌 이 투자자들은 회사에서 중대한 직책을 맡는 것을 마다하지 않음
 - 두 사람은 맡은 회사의 경영 팀을 점검하고, 이사진을 재구성하며 전략을 수립
- 또한 최근 10년 간 두 사람은 공격적인 전술로 명성을 쌓아 왔음
 - 다니엘 로브는 야후의 CEO였던 스캇 톰슨의 퇴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
 - 윌리엄 애크만은 제너럴 그로스 프로퍼티에 투자해 23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이기도 함
- 캠페인에 대한 투자에 실패하거나 재정적 위기를 경험하는 등 그들의 전략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역시 유사한 특징

□ 한편 작년 12월 말 윌리엄 애크만은 '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'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에서 공매자로서의 중대한 입장을 발표

- 투자자들은 40억 달러에 달하는 허벌라이프의 연 매출을 의심스러워 했고, 이에 윌리엄 애크만은 "소매 영업이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"고 발언
- 여기서 그는 허벌라이프의 회사 문화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
 - 허벌라이프에서 근무하는 한 재판매업자의 호화로운 주택을 관광하는 내용의 영상을 틀어주며, 허벌라이프가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
-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"허벌라이프가 곧 연방 규제기관에 의해 문을 닫게 될 것이다"는 대담한 예측까지 했음
 - 그의 발언 이후 허벌라이프 주가는 4일간 30% 가량 폭락

□ 이러한 윌리엄 애크만의 주장에 반박하여 다니엘 로브는 연구와 자료수집을 시작했고, 허벌라이프의 주가는 다시 회복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

- 다니엘 로브는 "애크만의 프레젠테이션은 허벌라이프가 문을 닫을 만큼 규제의 선을 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"며 윌리엄 애크만의 주장에 반박
 - 그는 허벌라이프의 주식가치를 68달러로 추산하였고, 허벌라이프 주식의 8.2%를 매입
- 그의 반박으로 인해 허벌라이프의 주가는 윌리엄 애크만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회복세를 보임
- 그는 투자자들에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었으며 이는 회사에게 큰 이익과 자유로운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 

India Tackles Its Costly Gold Addiction

* 기사출처: [Financial Times \(2013.01.14\)](#)

* 요약자: 진나현 (skgus128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인도, 금 수요 억제, 관세

“과도한 금 수요로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직면한 인도”



□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인 인도가 과도한 금 수입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

– 인도는 전 세계 금 수요의 20%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금에 대한 수요가 큼

- 금은 전통적으로 인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, 단순 투자의 개념을 넘어서 예물로 사용되는 등 문화적 상징성을 지님
- 그러나 지나친 금 수입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22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
 -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의 5.4%를 차지하는 규모
- 이에 인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 금이라고 분석했고,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금이 경상수지 적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전망

□ 금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책으로 인도 정부는 수입 관세의 인상을 계획 중에 있음

-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금의 수입 관세를 기존 4%에서 6%로 인상하고자 함
 - 관세로 인한 세입은 국가 재정 적자를 상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, 암시장 거래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야기
- 인도 정부는 지난해 이미 금값에 대한 관세를 2%에서 4%로 올린 바 있음
 - 세계금협회(WGC)에 따르면, 관세의 상승으로 지난해 인도의 금 수요는 607톤으로 전년에 비해 24%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
-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인도 금 소비자들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
 - 인도 금 소비자 가운데 10~15%만이 가격에 민감하며 나머지는 가격에 상관없이 금을 사들이는 현황
 -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금 수요는 급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

□ 이와 다른 접근 방법으로, 금의 낮은 투자가치성을 공략하자는 주장도 제기됨

-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 효과를 볼 수 없는 금 대신 직접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저축상품을 장려하자는 계획을 제안
- 그 동안 루피화의 약세로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, 다행히 루피화가 최근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어, 정책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높음

□ 또한 중앙은행과 정부는 그들이 비축해놓은 막대한 양의 금 주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추진


- 인도 중앙은행과 공공부문의 은행들이 대출을 위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금을 빌려주는 방식
 - 비축해 놓았던 금을 활용하고 회전시키는 방법으로, 해외로부터의 금 수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
- 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동안은 외부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짐

□ 결론적으로, 인도의 금 수요 억제 정책을 성공시킬 방안은 시장 논리에 근거

-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금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고 금값이 1,53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
- 이전까지는 루피화 약세로 인도 투자자들이 금에 몰렸지만, 올해는 루피화의 투자 가치가 커져 금 투자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

□ 그러나 이러한 인도 당국의 조치가 실제로 금 수입량을 억제하고 앞으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

- 치담바람 장관과 기타 공직자들은 10억 명에 달하는 자국민의 금 장식구 매입 및 금 펀드상품에 대한 심각한 투자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

- 실제로 인도인 소비자들은 정부가 소비자들의 금 수요를 억제시키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을 무시했던 전례가 있음
 - 이미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정부차원에서 금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으나, 이는 밀수입이라는 역효과만을 초래
- 이에 한 전문가는 “금에 대한 인도인의 애정은 굉장히 깊으며, 그 습관과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”라고 언급 

Japan's Abe Unveils 10.3 Trillion Yen Fiscal Stimulus: Economy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1.11\)](#)

* 요약자: 김령래 (rlafudfo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아베 총리, 재정 지출**

“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가”

□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10.3조 엔 규모의 계획을 발표

- 약 3.8조엔은 재난 방지와 재건축에 사용될 예정이며 3.1조 엔은 민간투자 활성화 및 기타 경제적 조치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
- 일본 정부에 의하면, 추가적인 지출로 GDP가 2% 포인트 상승할 것이며, 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

□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출은 재정 안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, 채권 수익률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통화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

- 경제학자 히로아키 무토는 아베 총리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어 재정 악화를 간과할 수 있음을 지적
- 정부가 재정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채권 수익률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엔화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
 - 달러 당 엔화가 89엔으로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의 하락은 이미 진행중

□ 실제로 일본의 채권 수익률을 보면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스프레드가 커지고 있음

- 일본의 단기 채권은 반등한 반면, 기대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장기 부채는 감소
- 30년 만기 증권과 5년 만기 증권의 이자율 스프레드가 2010년 3월 이후로 가장 크게 확대되었으며, 10년 만기 주의 경우 이자율이 상승
 - 이자율은 0.81%로 1 베이스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이는 12월 28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
- 한국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반면, 일본 중앙은행은 2%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
 - 이는 기존 목표치인 1%의 2배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데드라인이 없음

□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볼 때, 이 같은 재정 지출의 확대는 어려움에 놓인 일본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부채 부담이 우려됨

- 엔화 가치의 하락이 제조업 회사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치를 초과
- 또한 일본 정부의 부채가 작년에 비해 237% 상승하였으며 IMF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
-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금년에 재정 지출 확대를 돕기 위해 13.1조 엔의 추가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발표
 - 내각에 의하면 이런 펀딩 중 일부는 5조 엔의 채권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
 - 연금 지출을 커버하는 브릿지 채권 20조 엔을 포함하면 추가적인 채권 발행은 8조 엔이 될 것

□ 일본 정부는 경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 및 여러 방안을 추진 중

- 재정 지출에서 지방경제, 의료서비스, 보육 조치를 위해 3.1조 엔이 포함될 것이라 발표

-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 에너지 절약과 청정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
- 또한 국가 외국환 펀드에 특별 계좌를 설립함으로써 통화시장 안정 조치 또한 고려 중

□ **일본정부는 지출 정책을 포함한 경제 조치가 일본의 GDP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**

-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여를 고려하면 경제 조치의 총 규모는 20.2조 엔으로 추정됨
- 노무라는 아베 총리의 추가 지출로 실질 GDP가 올해 2분기에 3.5%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- 브로커들 또한 재정지출 확대, 엔화 약세, 미국의 경제 회복으로 금년에 일본의 GDP 성장률이 1%에서 1.8%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



Global House Prices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1.12\)](#)

* 요약자: 서성웅 (ssw35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주택가격, 고평가, 저평가

“세계 주택시장의 어두운 전망”

□ 세계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이전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,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

- 금융위기 이전 주택 가격의 호황은 주목할 만 하였으나, 현재 미국을 제외한 유럽 주변 경제는 사면초가에 몰리는 등 이전과 대조적
 - 주택가격의 폭이 다양해진 이후로 주택시장의 양상이 변모
- 세계적으로 지난 해 주택 가격이 상승한 국가의 수와 하락한 국가의 수는 같으나 몇몇 상승국의 상승세가 둔화되어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
 -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나라는 홍콩이며, 폭락한 국가는 스페인
 - 상승국인 캐나다는 지난해 7.1%상승과 비교하여 3.3%상승으로 상승세 둔화

□ 집값 변동폭, 적정 가격의 판단 척도, 그리고 연방 준비은행의 태도로 보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지속될 전망

- 적정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척도로 현재 건적과 과거 장기간의 평균을 비교
 -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비율, 주택가격과 개인당 가처분 소득의 비율이 척도

-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을 과거의 기준에 맞도록 낮추는 추세
- 적정가격을 판단하는 두 척도로 보아도 주택은 아직 저평가 되어 있으며 이는 대출 담보 금리가 낮도록 유지시키는 것을 도울 것임
 - 연방준비은행이 향후 몇 년간 화폐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약속


□ 미국과 달리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주택시장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

- 스페인과 프랑스를 포함하여 유로존의 많은 경제 대국들이 집값 하락세를 겪고 있음
 - 스페인의 집값 하락은 탄력을 받고 있고,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하락세도 빠르게 진행
 - 프랑스 역시 짧은 회복 이후 다시 하락하는 경향
- 특히 스페인의 주택 시장 상황은 고평가 되어 있는 주택가격과 과잉공급, 그리고 높은 실업률 문제로 인해 훨씬 심각함
 - 스페인은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을 판단하는 척도에서 아직 20% 가량 고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

□ 거대한 유로존에서 이례적으로 독일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고 영국은 비교적 준수한 상태

- 독일의 주택 가격은 적정가격 척도에서 17%가량 저평가 되어 있으며 실업률도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음
- 영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 5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수치보다는 사실상 더 나은 상황으로 판단됨
 - 상승하는 임대료와 소득이 적정 주택 가격에 근접하도록 돕고 있음

□ 이 외에도 여러 국가들의 주택 가격이 적정가치보다 고평가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

- 홍콩과 싱가포르, 캐나다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고평가 되어있음
- 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국가들은 일본과 같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하향세를 걸을 수 있음
- 은행의 도움이 중단된 후 취약해진 주택 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추후에 금융 완화를 없애야 할 것 

Japan's Central Bank Is Pressed to Boost Money Supply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1.02\)](#)

* 요약자: 정근우 (monhghg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BOJ**, **자민당**, **통화 정책**

“통화 공급 압력에 시달리는 일본 중앙은행”



□ 지난 12월 16일 일본 총선에서 적극적인 양적 완화와 엔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

- 자민당은 전체 의석 480석 중 294석을 차지하였으며,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공명당의 의석을 포함해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
- 이러한 자민당의 압승은 지난 '잃어버린 20년' 동안의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국민들의 기대감에 힘입은 결과
- 이는 자민당이 내세운 양적 완화와 엔저 정책을 뒷받침하는 힘으로 작용할 전망

□ 자민당은 이러한 통화 정책의 실행을 위해 BOJ(Bank of Japan)을 압박하고 있음

- 다가오는 1월 26일 총리에 취임하는 아베는 BOJ에 압력을 행사하여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통화 정책을 정부 내각이 조절하는 방침을 수립
- 이와 같은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은 지난 2011년 미국에서도 발생
 -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자 텍사스 주지사인 릭 페리는 지난 2011년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버냉키의 느슨한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난한 바 있음

□ 1998년 이전까지 BOJ는 정치권의 입김에 굴복해온 역사가 있음

- 1940년대 도조 히데키 정부의 군수 물자 징발에서부터 1970년대 다나카 정권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자금 조달 등이 이의 대표적 사례
- 또한 1980년대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거품, 1990년대 은행 위기 당시에도 BOJ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

- 불과 지난 1998년에서야 BOJ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는 데에 성공

□ **자민당은 BOJ에게 양적 완화와 더불어 일본 장기 국채의 매입과 연간 인플레 타깃을 2%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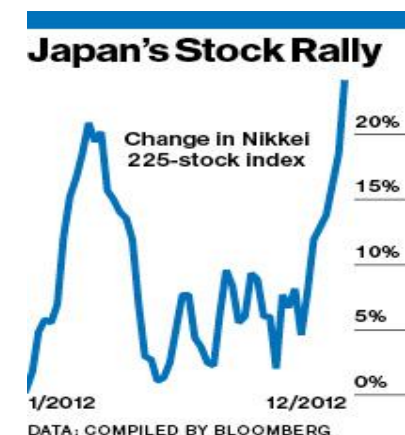
- 이미 지난 12월 20일 BOJ는 정부의 국채 구매 확대와 1% 인플레 목표의 재고에 동의한 바 있음
- 하지만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오는 4월에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시라카와 BOJ 총재에게 더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

□ **BOJ 총재 시라카와는 지난 2011년 이미 현 자민당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화 팽창 정책에 반대**

- 시라카와 총재는 제한 없는 통화 팽창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일본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
- 따라서 자민당 정부는 BOJ와 시라카와 총재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사와 함께 총재 퇴임 이후 차기 총재 인선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

□ **한편 엔화를 무분별하게 생산하여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이른바 '아베노믹스'는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임**

-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의 운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으로 화폐를 공급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음
- 이러한 발언에 힘입어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점차 떨어지고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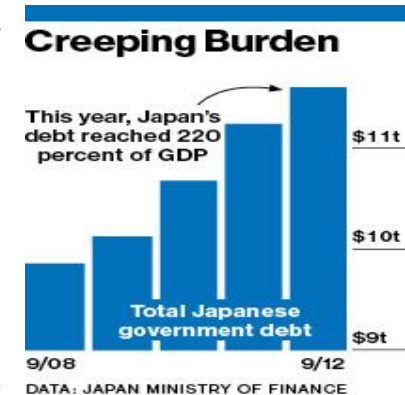
- 지난 2012년 마지막 주식 거래일에 니케이 225지수는 전년에 비해 23% 상승

□ 자민당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조 엔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임


- 일본은 10조 3000억엔의 재정지출 가운데 2011년 대지진이 발생했던 동북부 지역에 약 4조엔을 투입하고,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엔을 지원할 방침
- 이외에도 만기가 긴 국내 채권의 매입과 각종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임
- 그러나 1999년 이래 발표된 14번의 경기부양책 중 그 어느 것도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했던 전례를 볼 때,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은 설부른 판단

□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지나친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 우려하며 과도한 엔화 가치 약세에 대해 경고

- IMF에 따르면 2013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25%로 추정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미국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
- 일본의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대규모 재정 지출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경고
 -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불황에 대처할 만한 방안을 찾기 어려워질 것
- 또한 일본 국민이 엔화가치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예금을 인출할 경우 일본 정부의 자금 조달은



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

- 하지만 일본 내의 막대한 예금잔액을 감안하면 아직은 통화정책을 시행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웅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한결 (rocky87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박나현 (nh313131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김시연 (rea1200@hanyang.ac.kr) 김지연 (jiyeon7303@hanyang.ac.kr) 이창석 (laims2@hanyang.ac.kr)